

시킴(사동)법과 입음(피동)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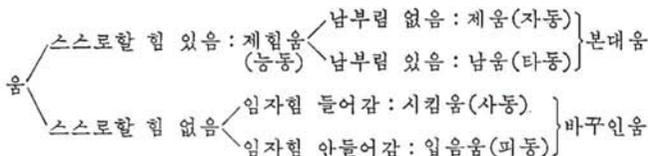
김 석 득
(연세대 교수, 국어학)

1. 시킴과 입음의 말본 범주

시킴과 입음은 그 형태적 파생법이 유사하고, 통어적으로도 비슷한 의미를 유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킴과 입음 그 두 사이는 분명한 변별적 의미소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조적 특질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말본 범주로 논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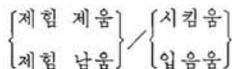
이제 이 글의 전개를 위하여 먼저 시킴되기(시동화)와 입음되기(피동화)의 말본들에서의 그 자리를 잡아 보기로 한다.

움직임은 크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의 있고 없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위 분류된다.



이를 대립과 변환 개념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대립 개념



변환 개념

{계합 계움} → {시킴} : 시킴됨되기
{계합 남움} → {입움} : 입움됨되기

계움(직씨)의 월을 한자리월이라 하고, 남움(직씨)의 월을 두자리월이라 하면, 시킴월과 입움월 되기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변환 형식을 취한다 :

{한자리월} → {시킴월}
{두자리월} → {입움월}

2. 시킴월되기(사동문화)

시킴이란, 임자(주체)가 어떠한 대상을 움직이게 하는(시키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시킴을 시킴되게 만드는 변환 형식은 한자리월에서 시킴월되기과 두자리월에서 시킴월되기로 나누어 진다.

2.1. 한자리월에서 시킴월되기

국어에서 시킴월(사역문)은 남움직성(타동성, transitivité)을 가진다. 한자리월이란 편의상 자리가 하나인 계움월(자동사문) 혹은 그림월(형용사문)을 가리킨다. 한자리월인 계움월이나 그림월이 시킴월로 바뀌려면 기존의 임자를 움직이게 하는 임자말이 새로이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임자는 부림을 받는 객체어 곧 부림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움직씨나 그림직씨는 시킴의 뜻을 갖는 움직씨 곧 남움직씨로 변환되(타동사화)어야 한다.

보기 : 공이 구른다 → 아무개가 공을 굴린다
땅이 넓다 → 아무개가 땅을 넓힌다

위에서 보면 한자리월이 시킴월이 되면서 두자리월로 바뀌었다. 그 바

킴의 과정을 보면, 통어적으로는 새로운 입자말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입자말이 부립말(목적어)이 되었다. 형태적으로는 제음(자동)이나 그림(형용)이 시킴접미사의 첨가를 받아 남음(타동)으로 바뀌(파생)었다. 이와 같이 한 자리월이 시킴에서 두자리월로 바뀐 것은 순전히 제음(또는 그림)이 시킴의 남음되기 가능했기 때문이다. 시킴의 남음되기 가능함으로써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늘릴 수 있는 제음(또는 그림)을 “자리만듬성(능격성, ergativité)”이 있는 제음이라 부른다. 이는 같은 제음이면서 시킴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자리만듬성이 제약되는 제음과 대립된다.

1) 자리만듬성의 형식

자리만듬성이 제약되는 제음이란, 의미론적 이유로, 형태적 형식이나 통어적 형식을 가지고 제음월을 남음월로 바꿀 수 없는 제음을 말한다. 여기 형태적 형식이란, “접미법”에 의한 시킴파생접미사 {-이-}의 첨가를 말하고, 통어적 형식이란, “도움법”에 의한 도움음(보조동사)의 어간 {하-}와 이에 앞선 풀이씨의 연결자 {-게}와의 공존형 {-게하-}의 수행을 말한다.¹⁾

2) 자리만듬성의 제약

한자리월을 이루는 제음이 모두 두자리월의 시킴월을 만들 수는 없다.

보기 : ① 난꽃이 활짝 피었다 → *아무개(무엇)가 난꽃을 활짝 피웠다

②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 아무개가 웃음꽃을 활짝 피웠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보기 ①에서, 바뀐 월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때의 “피었다”는 시킴의 자리만듬성이 없다. ②는 바뀐 월을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이때의 “피었다”는 시킴의 자리만듬성이 있다. 그러면 왜 같은 제음(자동)인데 어느 것은 시킴의 자리만듬성이 있고 어느 것은 없는 것일까? 시킴월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자리만듬성의 제약”이라 하고, 이 제약의 조건을 들어 보면 대략 다

1) {-게하-}가 시킴월 수행 요건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꽤 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자리만듬성과 시킴월되기 제약”을 쓴 <말> 4호(연대, 어학당, 1980), 47~50쪽을 볼 것.

음과 같다.²⁾

제움의 의미소성이 입자말과의 의미소성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자연발생적인 것이거나 자연현상적인 것, 본능적인 것, 천재지변 따위 불가항력적인 것, 자의에 의한 자발적인 것, 그리고 재귀성 의사 제움직씨의 경우는 그 제움은 시킴의 자리만들성이 없다.

- 보기 : ① 곡식이 익는다(곡식이 익는 계절)→*(무엇이) 곡식을 익힌다
② 새가 지저귀다→*(아무개가, 무엇이) 새를 지저귀게 한다
③ 벼락이 떨어졌다→*(무엇이) 벼락을 떨어지게 했다
④ 그는 스스로 공부한다→*(아무개가) 그에게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강제, 구속)
⑤ 그가 면도한다(그자신을)→*그가 그자신에게 면도하게 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익다, 지저귀다, 떨어지다” 따위는 자리만들성이 없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나 또는 그밖의 것들이 그러한 의미적 제약 조건에 놓이지 않는다면, 이들은 자리만들성이 있다(한 보기 : 감자가 익는다→(아무개가) 감자를 익힌다). ④에서는, 그가 공부하는 것은 진실로 속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그 말의 바탕에는 시킴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런데, 시킴의 의미 테두리가 ‘강제’와 ‘허용’을 먹음고 있는 “-게하-” 형식을 생각해 보자. 보기에서와 같이 ‘강제, 구속’의 뜻으로 해석할 경우는 그 월이 성립될 수 없다. 물론 만일, 그것이 ‘허용’의 뜻으로 해석된다면, 그 월은 성립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행위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이거나, “자발적으로 행위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비논리적(논리적 모순)이다. ⑤에서는 만일에 제 3자가 그에게 면도하도록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것이라면 어색한 대로 유효하다(보기 : (아무개가) 그에게 그 자신을 면도하게 한다(허용, 구속)). 그러나 ⑤의 보기에서와 같이 행위자가 행위자 자신을 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물론 행위자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의중에서, 혹은 독백으로) “너는 너 자신을 면도 좀 하라”고 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표면적인

2) 자세한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 진술형식으로 시킴꼴을 쓸 수는 없다.

2.2. 두자리월에서 시킴월되기

1) 자리만듬성의 형식

두자리월이란 일반적으로 남음월(타동사문)을 말한다. 두자리월이 시킴월로 바뀌려면 기존의 임자를 시킴을 받는 자리로 고치면서 시킴을 하는 새로운 임자를 도입한다. 아울러 제힘 남음(능동 타동)을 시킴 남음(사역 타동)으로 바꾼다. 시킴 남음이 되려면 그 형식으로 한자리월에서의 시킴월되기과 똑같은 “접미법”과 “도움법”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시킴월은 세자리월이 된다.

보기 : 어머니가 아들을 안았다→(아무개가) 어머니에게 아들을 안기었다.

두자리월을 세자리월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두자리월의 남음에 있다고 본다면 그 남음은 자리만듬성이 있는 셈이다. 이 자리만듬성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으며, 그 제약 요건은 한자리월의 경우와 대체로 같은 요건이다.

2) 자리만듬성의 제약

임자말과의 관계에서 두자리월의 행위소가 자연발생적인 것, 혹은 자연현상적인 것, 천재지변 따위 불가항력적인 것, 자발적인 것, 그리고 재귀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시킴월의 자리만듬성이 없다.

보기 : ① 바람이 길을 쓴다→(아무개가, 무엇이) 바람에 길을 쓸린다

② 참새가 곡식을 쪼다→*(아무개가) 참새에게 곡식을 쪼인다

③ 물마가 한 동네를 휩쓸었다

→*(아무개가, 무엇이) 물마에 한 동네를 휩쓸렀다

④ 그는 밤새도록(스스로) 연구를 계속했다

→*(아무개가) 그에게 밤새도록(스스로) 연구를 계속하게 했다(구속, 강제)

⑤ 그 청년은 그 자신을 원망했다

→*(아무개가) 그 청년에게 청년 자신을 원망하게 했다(허용, 강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쓸다, 쪼다, 휩쓸다” 따위는 자리만듬성이 없다. 그러나 만일, 이들이 그러한 의미적 제약 조건에 놓이지 않는다면, 이

들은 자리만듬성이 있다(한 보기: 학생들이 길을 쓴다→아무개가 학생들에게 길을 쓸린다). ④와 ⑤의 경우는 설명을 필요로 한다. ④에서 그가 밤새워 연구하는 것은 남의 강제성없이 속에서 일어나와서 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④의 그 바꾸어진 월에서는 시키는 사람의 강제적 의사가 자발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강제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만일 시키는 의미가 '허용'의 뜻이라면 그 월은 받아들일 수 있다. ⑤의 경우, 물론 아무개가 청년에게, “남을 원망하기 전에 너 자신을 원망하라”고 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내용을 보고서, 이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보기와 같은 시킴월을 쓸 수는 없다.

3. 입음월되기(피동문화)

입음(피동)이란 남의 힘을 빌어 이루어지는 움직임이다. 다른 나라말에 비하면 국어의 입음법은 특이하다. 인도유럽말 따위는 말법으로서의 입음의 쓰임이 넓다. 그러나 국어는 그보다는 좁다. 국어에서는, 말의 법(어법)에서의 입음과 자연의 객관적인 입음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곧 객관적으로는 남의 힘을 입은 것이라도 주관적인 말의 법으로서는 제힘움직임(능동)으로 표현하는 일이 있다. 가령,

선생이 학생을 가르친다

→학생이 선생에게 배운다(가르침을 받는다)

에서 객관적으로는 “배운다”가 “가르친다”의 입음이 된다. 그러나 국어의 말법으로 보면 이는 입음이 아니다. 또한,

선생이 책상을 쳤다

→*책상이 선생에게 *맞았다(*치히다, *치어 지다)

에서, “맞다”에는 객관적으로는 “치다”의 입음이 있으나, 국어의 말법으로 보면 거기에는 입음의 표현이 없다. 이럴 경우, 영어의 말법으로 보면

이를 입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3.1. 입음의 형식

국어에서 입음은 일정한 구조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입음음을 가진 입음월은 움직임의 힘을 입히는 남(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에 의하여 움직임을 입는 입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움직임을 입음이 형태적으로 혹은 통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위의 “힘을 입히는 남”을 뒤집어 말하면 움직임을 제힘으로 수행하는 입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움직임을 입는 대상은 입자가 움직여 부리는 부림(목적)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제힘월(능동문)과 입음월(피동문)의 속뜻(핵심적인 뜻)은 같음을 알 수 있다. 곧 의미론적 측면에서 볼 때 두 월 사이는 통어 의미의 동의성 관계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제힘음의 위치에서 보느냐 입음음의 위치에서 보느냐의 관점이나 초점의 차이일 뿐이다. 물론 이 관점이나 초점의 차이는 구체적으로는 말할이의 심리적인 관심의 강도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두 표현 사이에는 상당한 정감의 차이가 있다.

입음월을 만드는 입음법은 일반적으로 두자리월에서 이루어지는 “두자리월 입음법”이다. 그러나 이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한자리월에서 이루어지는 “한자리월 입음법”도 가능하다(문화가 발달한다→문화가 발달하여 진다).” 그런데, 입음월되기 of 본은 두자리월 입음법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므로, 논의의 순서에서 두자리월 입음법을 먼저 다루기로 한다.

1) 두자리월 입음법

두자리월 입음법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나는 입자의 의미자질 문제요, 다른 하나는 입음월이 되게 하는 움직씨의 형식 문제이다. 두자리월 입음되기 of 가장 순수한 것은 입음 입자의 의미자질이 “유정성”을 띠 때다. 이때의 입음을 받는 것은 통상 이로움과 해로움을 입는 뜻을 가진다.

3) 이것이 입음월이 된다는 것은 도움법에 의한 {-어지-}가 입음의 형식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보기 :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긴다(이로움)
약한자가 강자에게 먹힌다(해로움)

그런데, 국어에서 입음 입자가 부정성을 띠는 때도 입음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보기 : 밥이 자꾸(나에게) 먹힌다

이 경우는 입자 입음이 이·해로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입자의 입음이 “절로 되는 입음”이다. 이와 같이 절로 되는 입음에는 입자 입음이 부정성이란도 입음월이 된다.

다음으로, 입음월되게 하는 풀이 부분의 형식 문제를 생각해 보자. 두자리월인 경우에는 형태론적 운용과 통어론적 운용이 있다.

(1) 형태론적 운용 및 제약

형태론적 운용은, “접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접미법에는, 입음 파생접미사 {-히-}를 첨가하여 제힘음(능동)을 입음음(피동)되게 하는 “접미첨가법”과, “하” 파생 제힘남음(하다 따위 능동타동)에서 파생접미 “-하-” 대신에 다른 파생접미 “-되-, -당하-, -반-”)을 갈아 넣는 “접미대치법” 등 두 가지가 있다.

접미첨가법의 보기 : 그 사람이 문을 닫았다

→문이(그사람에 의하여)닫히었다

그 사람은 친구 교재를 끊었다

→친구 교재가(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끊기었다

여기 입음 파생접미는 변이형태에 “-히-, -이-, -리-, -기-” 따위가 있으며, 그 기본형은 {-히-}로 함이 편리하다. 그 변이형태는 대체로 개별

4) “-되-, -당하-, -반-”은 본래는 제힘음(능동)이므로, 이름씨와 결합하여 합성어로 처리할 수도 있다(필자의 국어구조론(1971), 31 쪽). 그런데 이를 합성어나 아니면 파생어 어느 하나로 처리하여도 아무 흠이 없다. 그러나 입음 만들기 과정에서, 파생접미 “-하-”의 대신으로 이들이 갈아드는 것이므로 이를 파생접미로 처리함이 나을 듯하다.

적인 음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접미대치법의 보기 : 부모가 자식을 걱정한다
→자식이 부모에게 걱정된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존경받는다
힘있는이가 약한이를 협박한다
→약한이가 힘있는이에게 협박당한다

〈입음되기 제약〉

여기 “하” 파생음적씨는 그 어근이 일반적으로 한정된 이름씨이다. 이 한정된 어근도 입음접미사 “-되-, -반-, -당하-”와 각각 대치하려 할 때는 또한 제한을 받는다. 이 제한의 분명한 규칙은 세우기 어려우나, 대체로 그 경향성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파생음적씨(입음받을 대상의 의미자질과 관계있는)의 어간의 의미자질과, 파생접미 “-되-, -당하-, -반-”의 의미자질과의 상관 관계에서 서로 선택 결합되는 경향성을 보임이 그것이다.

입음받을 대상이 사람과만 관계있는 것은, “협박한다, 감금한다, 존경한다……”등이고, 입음받는 대상이 사람이나 동·생물 모두에게 관계있는 것은 “사랑하다, 칭찬하다……”등이며, 입음받는 대상이 사람이나 동·생물이나 무정물 모두에 관계 있는 것은 “걱정한다, 주목한다……”등이다. 이들의 입음되기에서는 입음파생접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수의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의 조건은 “하” 파생음적씨의 어간의 의미자질과 입음파생접미의 의미자질과의 상관 관계이다. 이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선택 결합 과정에서 알아둘 것은 입음파생접미의 의미자질이다. “-되-”는 ‘절로 되는 입음 곧 절로 이루어지는 입음’의 뜻을 가진다. “-당하-”는 ‘반의도적(입음 받는이의 의사에 반하는) 비수용성(입음 받는이의 수용성이 거부되는)’의 뜻을 가진다. “-반-”은 ‘의도적 또는 반의도적 수용성’의 뜻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어간의 의미자질도 이와 유사성을 가진 것이 선택된다.

어근이 절로 됨의 속성과 반의도적 비수용성, 반의도적 수용성이 있는

것은 “-되-, -당하-, -받-”을 그때그때에 따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 :

주목하다 → 주목되다, 주목당하다, 주목받다
결박하다 → 결박되다, 결박당하다, 결박받다
농락하다 → 농락되다, 농락당하다, 농락받다……

어근이 절로 됨의 속성 및 반의도적 비수용성이 있는 것은 “-되-, -당하-”를 취한다 :

감금하다 → 감금되다, 감금당하다, *감금받다……

어근이 절로 이루는 속성, 의도적 수용성이 있는 것은 “-되-, -받-”을 취한다 :

존경하다 → 존경되다, 존경받다, *존경당하다
용서하다 → 용서되다, 용서받다, *용서당하다……

어근이 절로 됨의 속성만 있는 것은 “-되-”만을 취한다 :

걱정하다 → 걱정되다, *걱정당하다, *걱정받다
연구하다 → 연구되다, *연구당하다, *연구받다……

어근이 반의도적 비수용성, 반의도적 수용성이 있는 것은 “-당하-, -받-”을 취한다 :

협박하다 → 협박당하다, 협박받다, *협박되다……

어근이 의도적 수용성만 있는 것은 “-받-”만을 취한다 :

사랑하다 → 사랑받다, *사랑되다, *사랑당하다
칭찬하다 → 칭찬받다, *칭찬되다, *칭찬당하다……

이상에서 보아 절로 됨의 속성의 분포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입음의 파생접미 중 “-되-”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임도 짐작할 수 있다.

형태론적 운용의 {-히-}첨가 접미법 중에는 도움법에 의한 {-어지-}형을 수의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아기가 어머니에게 안기었다/안아 지었다.

{-되-, -당하-, -반-} 접미대치법의 경우는 이들과 {-어지-}형의 수의교체는 불가능하며, 다만 이들 다음에 군더더기로 {-어지-}를 더하는 일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걱정된다/걱정되어 진다

(2) 통어론적 운용

이는 “도움법”에 해당한다. 도움법이란 도움음직씨 “지다”의 어간 {-지-}와 이와 필수 공존되는 앞풀이씨의 연결자 {-어-}와의 배합형 {-어지-}에 의하여, 앞풀이씨의 입음음됨을 통어적으로 돕는 법을 이른다. 이 도움법은 여의 남음(타동) 뿐아니라 “하” 파생남음까지도 적용된다.

보기 : 그 사람이 노루 꼬리를 잡았다.

→노루 꼬리가(그 사람에게) 잡아 졌다(잡히었다)

나는 자꾸 꿈을 꾀다

→꿈이 자꾸(나에게) 꾸어 진다(꾸힌다)

의원들은 그 문제를 반박하였다

→그 문제가 의원들에 의하여 반박하여 졌다

접미법에 의한 입음 수행은 순수한 입음이지만 도움법에 의한 입음 수행은 “가능성”이나 “절로 되어짐”의 뜻을 가짐이 예사이다. 그러나 한편 순수 입음의 뜻으로도 {-어지-}를 쓰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어지-}가 오늘날 생산성있는 순수 입음의 형식이 되어감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하” 파생음직씨의 경우나 순수 제음직씨의 경우에는 접미법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도움법 {-어지-}의 순수 입음의 수행은 필수적이다.

어느 경우에는 {-어지-}만의 수행이 오히려 어색한 표현이 되는 수가 있다. 이때는 입음 접미사나 시킴 접미사를 덧붙이면 그 어색함이 없어지기도 한다 :

노루꼬리가 (그에게) 잡아 진다

~노루꼬리가 (그에게) 잡히어 진다

이 책의 출판이 그에게 맡아 진다
~이 책의 출판이 그에게 맡기어 진다

<입음의 형식을 가진 본대음직씨(원동사) 문제>

형식적으로는 입음이 가정되거나 사실은 입음이 아니고 기본형인 본대음직씨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것은, 그것이 두자리의 제힘월이나 혹은 한자리의 제힘월로 뒤칠 수 없다는 검증 결과에 말미암는다. 다음의 {-어지-}형 표현은 모두 입음월이 아니다. 따라서 {-어지-}형은 모두 본대음직씨이다. 그것은 도림(괄호)안의 두자리월 또는 한자리월이 받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해가 떨어지다(*무엇이 해를 떨어. *해가 떨어다)
날씨가 풀어지다(*무엇이 날씨를 풀다. *날씨가 풀다)
초생달이 이질어지다(*무엇이 초생달을 이질다. *초생달이 이질다)
집이 쓸어지다(*무엇이 집을 쓸다. *집이 쓸다)
마음이 누글어지다(*무엇이 마음을 누글다. *마음이 누글다)
능수버들이 늘어지다(*무엇이 능수버들을 늘다. *능수버들이 늘다)

2) 한자리월 입음법

한자리월 입음법이란, 제음직씨월이 입음월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음법은 행위자가 곧 수동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행위자와 행위의 수동자가 따로 있어서 이루어지는 입음법과는 매우 다르다. 행위자가 곧 수동자인 경우는 통어의미상 제힘월과 입음월이 동의(同意) 곧 같은 뜻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보기 : 내가 바닷물에 자꾸 뜬다
→내가 바닷물에 자꾸 떠진다/뜨게 된다 (같은 뜻)
그가 도전한다
→그가 도전받는다 (다른 뜻)

이러한 따위의 입음의 운용에는 형태론적 운용과 통어론적 운용이 있다.

(1) 형태론적 운용 및 제약

이는 접미법에 의한 입음되기가 운용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 접미법은

“하” 파생제움에만 적용된다. 곧, “하” 파생제움의 “-하-” 대신 입음의 파생접미사 “-되-, -받-” 따위를 대치함으로써 입음되기를 이루는 것이다 :

그는 취직했다
 →그는 취직되었다
 그가 도전한다
 →그가 도전받는다/도전당한다

그런데, 여기 “-되-, -받-, -당하-”는 매우 제한을 받는다.

투쟁하다 → *투쟁되다, *투쟁받다, *투쟁당하다
 취직하다 → 취직되다, *취직받다, *취직당하다
 노름하다 → *노름되다, *노름받다, *노름당하다
 절박하다 → *절박되다, *절박받다, *절박당하다
 도전하다 → *도전되다, *도전받다, *도전당하다
 결박하다 → 결박되다, 결박받다, 결박당하다……

이 경우에도, 두자리 입음법에서와 같이 대체로 어근의 의미자질과 입음파생접미사(-되-, -받-, -당하-)의 의미자질과의 상관 관계가 그 제약의 조건이 된다고 보아진다.

(2) 통어적 운용

여기 통어적 운용은 순수 제움직씨의 경우와 “하” 파생제움직씨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이 두 경우는 모두 도움법의 형식 {-어지-}와 {-게되-}에 의하여 입음법이 수행된다. {-어지-}와 {-게되-}는 함께 입음의 뜻 테두리 안에 들지만, 그 각각의 내포적인 뜻차는 일반적으로 “입음의 할 수 있음(가능성)”과 “입음의 절로됨”으로 갈린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한 쓰임에 따라 입음의 할 수 있음과 절로됨의 내포적 뜻을 공유하기도 한다. 다음은 그러한 보기들이다 :

따뜻하니 얼음이 녹는다.
 →따뜻하니 얼음이 녹아 진다/녹게 된다 (절로 됨)
 언제나 점심때면 그 집에 간다
 →언제나 점심때면 그 집에 가야 진다/가게 된다 (절로 됨)
 나도 이제 해엄친다

→나도 이제 해엄치어 진다/해엄치게 된다(할 수 있음)

문화가 자주 발달한다

→문화가 자주 발달하여 진다/발달하게 된다(절로 됨)

이런 정치적 안정 속에서는 경계가 발달한다

→이런 정치적 안정 속에서는 경계가 발달하여 진다/발달하게 된다(할 수 있음)

4. 결 론

시킴되기와 입음되기는 다같이 형태론적 접미법과 통어론적 도움법이 운용된다. 그러나 둘의 세부적 구조나 의미는 다르다.

시킴될되기에는 “한자리월입음법”과 “두자리월입음법”이 있다. 이 둘은 모두 “자리만듬성”과 관계된다. 시킴자리만듬에서 제기되는 공통 제약은, 입자말의 의미소성과 관련되는 으뜸품이씨의 의미소성이다. 시킴월을 형식면으로 볼 때, 한자리월이나 두자리월의 시킴될되기에서는 모두 {-이-}에 의한 “접미법”과 {-게하-}에 의한 “도움법”을 취함이 본이다. 시킴될되기에서는 자리의 도치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의미론의 측면에서 보면 시킴월은 제음적씨월에 시킴의 뜻이 첨가될 뿐이며, 두 월 사이에는 통어적 속뜻이 같지 않음이 일반적 현상이다.

입음월의 경우 국어에서는 주관적 입음과 자연의 객관적 입음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입음법에도 “한자리월입음법”과 “두자리월입음법”이 있다. 두자리월입음법에서는 제힘월(능동문)을 입음월로 바꿀 때 자리가 바뀐다. 이 경우 두 월구조 사이에는 통어적 속뜻이 같다. 품이말의 부분에서는 “접미법” 운용과 “도움법” 운용이 적용된다. 접미법에서는 {-히-} 첨가법과 “하” 파생어의 “-하-”의 {-되-, -당하-, -반-}으로의 대처법으로 나타난다. {-되-, -당하-, -반-}은 모두 외연적인 뜻은 같으나 그 내포적 뜻은 다르다. 이들의 선택은 움직임 어근의 의미자질과의 상관 관계에 따른다. 도움법은 두자리월의 경우 {-어지-}에 의하여 수행된다. “어지”의 존재가 모두 입음되기 도움법은 아니다. 이것의 도움법 성립 여부는 제힘월로의 되

뒤치기의 가능성 여부로 검증된다. 한자리월의 입음퇴기에서는 행위자가 곧 수동자가 된다. 따라서 제힘월과 입음월 사이에는 통어적 속뜻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 한자리월입음법에서의 형태론적 운용은 “하” 파생접미법에만 적용되며, 그것은 “-하-”의 {-되-, -말-, -당하-}에로의 대치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대치 대상형의 선택은 어근과 대치형 대상간의 의미소성과의 상관 관계로 이루어진다. 통어론적 운용은 순수 제움직씨와 “하” 파생제움직씨가 모두 도움법 {-어지-}와 {-게되-}에 의하여 수행된다. {-어지-}는 오늘날 입음퇴기의 생산성있는 형식이다. *

